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1. 19(목)	
		작성 문의	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과장 윤현주 / 사무관 박순홍 (Tel. 044-200-2221/2223)
<p>* 엠바고 : 1.19(목) 15:30(행사 종료)이후 사용</p> <p># 공동배포 : 중소기업청</p>			

소공인은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토대

- 정부, 소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R&D, 판로확대 등 적극 지원

□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19일(목) 오후 서울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지원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씨엔에스, 삼호정밀 등 소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공인들을 격려했다.

* (참석) 중소기업청장(주영섭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(김흥빈),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장(곽의택) 등

< 방문업체 개요 >

업체명	대표자	주요 경력
CNS	이수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립 '94년, 연매출 2억원, 종사자 1명 • 주생산품 : 물딩기계 설계 및 제작(완성품 제작) • 특이사항 : 문래동 소공인 4개사가 협업하여 농업용 저수지 수질측정·개선용 선박을 위한 무인항법장치 연계 동력장치 개발을 진행중
삼호정밀	박재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설립 '03년, 연매출 10억원, 종사자 7명 • 주생산품 : 공압기계(가스밸브, 노즐), 기어 제작 • 특이사항 : 소공인 경영대학, 작업환경개선 등 소공인센터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속 성장 → '15년 이후 사업장 확장(30→60평), 장비추가(CNC 2대), 고용확대(5→7명)

○ 이날 방문은 설날을 맞이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공인들을 격려하고, 정부의 지원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□ 황 권한대행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**뿌리산업의 발전과 서민 일자리 창출**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공인들이 **‘활력’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**이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문래동 소공인들은 단순히 기계·금속의 ‘가공’에 그치지 않고 **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융합 신제품***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,

* (예시) △ 나전칠기 + 금속팬이 → 나전칠기 팬이,
△ 너트·볼트 + 악세사리 → 금속 주얼리

○ 앞으로도 소공인들이 산업현장에서 **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들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여 ‘기술강국 대한민국’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**을 당부했다.

□ 정부는 소공인의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**R&D 지원과 함께 소공인 우수제품에 대한 브랜드 개발,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판로확대도 지원할 예정**이다.

* 소공인 전용사업('17년) : R&D 51억원, 판로·마케팅 93억원, 정책자금 4,100억원

○ 또한 **‘소공인 기술교육 훈련기관’**을 새롭게 **신설***하여 현장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우수 소공인을 육성하고,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**작업장·전시공간 등 공동기반시설**도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* 기능·전문대학 등 업종별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하여 도제식 실습교육과정 운영('17년 5개소)

** 공동인프라 : ('15) 5개소 → ('16) 10개소 → ('17) 15개소

※ (붙임) 1.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 및 소공인 특화센터 현황
2. '17년 소공인 지원계획 주요내용

□ 서울 문래동 소공인 현황

- '70년대 이후 기계금속, 판금·표면처리 분야 소공인이 문래동에 자연적으로 밀집하여 “철공소 골목”을 형성
- 현재 기계금속 분야 철공인 1,300개 업체가 밀집해 있으며, 소규모 사업자가(평균 종업원 1.3명) 10년 이상 운영

<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 개요 >

위 치	▪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~6가, 약 1,300여개 업체
주요업종	▪ 기계·금속(91.9%), 판금·표면처리(7.1%), 기타(1.0%)
생산제품	▪ 부품소재(46.5%), 반제품(30.1%), 완제품(18.0%), 원자재(5.4%) 순
특 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70년대부터 집적지 형성, 평균종업원 1.3명 * 상시근로자 : 3명 미만(1,100업체), 3명 이상(200업체) ▪ 집적지 소공인의 78%가 10년 이상의 사업경력 보유 ▪ 문래동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물 개·보수가 제한

□ 서울 문래 기계금속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개요

- (기간) '13.5월 ~ 계속
- (주관) 한국소공인진흥협회 (회장 곽의택)
- (예산) 총 29.5억원('13년 22억원, '14년 26억원, '15년 13.8억원, '16. 10.9억원)
- (공간) 소공인을 위한 ① 혁신제품 전시실(116㎡) ② 상상실현 창작실(100㎡) ③ 교육 및 소통공간(90㎡) 등으로 구성
- (기능) ① 제품·기술혁신 지원, ② 제품디자인 등 문화접목, ③ 마케팅·기술지원, ④ 경영역량 교육 및 애로해소

- **관련근거** :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(‘15.5월 시행)

- **소공인 현황**
 - (소공인) 제조업(19개 업종)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, ‘14년 기준 31.7만개 업체에 98.9만명이 종사
 - 업종은 금속가공(5.6만개, 18%), 식료품(4.9만개, 16%) 순이며, 지역은 경기(9.2만개, 29%), 서울(5.6만개, 18%), 부산(2.4만개, 8%) 순
 - (집적지) 동일 업종의 소공인이 50(특별·광역시), 40(시), 20(군)인 이상인 읍·면·동으로 전국에 696개 집적지 산재

- **‘17년 소공인 특화사업** : 총 4,420억원
 - ① (특화센터, 104억원) 집적지에 업종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소공인 육성사업*을 추진 (센터별 4억원 내외, ‘16, 36개소)
 - * (역할) 3D프린터 등 공용장비 활용촉진, 협업완제품 생산, 공동마케팅 등
 - ② (공동인프라, 72억원) 집적지 내 소공인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, 작업장 등 공용시설을 구축 (‘16, 5개소)
 - * 봉제 작업장(서울 창신동, 장위동), 인쇄 창고(대전 정동), 귀금속 작업장(부산 범천동), 수제화 전시장(부산 범일동)
 - ③ (판로개척, 93억원) 전시회 참가, 홍보 등 지원 (‘16, 201개사)
 - ④ (제품·기술 가치향상, 51억원) 기술개발 및 제품·공정개선 (‘16, 96개사)
 - ⑤ (특화자금, 4,100억원) 5억원 한도 시설·운전자금 융자 (금리 : 2.08%)